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특집 : 장기기증
2011 Winter Vol. 07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Vol.07
2011. Winter

특집 장기기증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3층 생명위원회
TEL : 02-727-2350~3 FAX : 02-727-2355

〈생명을 위하여〉는 생명수호활동과 생명윤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은 생명위원회(Tel. 02-727-2352)로 연락주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무한돌봄의 영성



김용태
(재)한마음한문운동본부 본부장

요즘 세상에서 회자하는 다양한 화제들이 있습니다.

독재자 카다피의 죽음, 터키의 지진, 태국의 대홍수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깊은 생각에 빠져봅니다.

고민 끝에 다다른 생각은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기있게 하는 길을 찾는 것도 종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시편 8,5)'를 연발하던 시편 저자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느님의 '무한 돌봄'으로 생겨나고 살아가는 것이며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보다 작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기부전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애처롭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1만 명 이상 있습니다. 이들이 겪어야 하는 하는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극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받는 이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것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실천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그들을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망 후에, 혹은 사고로 자신이 뇌사에 이르렀을 때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운동입니다.

이처럼 사후 장기기증희망신청은 새로운 생명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 생명운동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문화로 승화되어 하느님의 무한 돌봄을 받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무한 돌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기금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모든 가치에 우선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신비기금은 ?

- 배아, 태아, 말기환자 등 소외되기 쉬운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수호 활동하는 곳에 지원합니다.
- 올바른 생명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학술 및 교육활동에 지원합니다.
-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출판 및 문화행사에 지원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며...

- 생명위원회 활동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생명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에 초대합니다.
- 설립기념 생명미사 때 후원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후원방법

- 후원금 문의 : 02-727-2353
- 무통장,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201-050148 예금주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생명위원회

- 생명수호를 위한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조에 의거 법인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특집 : 장기기증

02 권두언	무한돌봄의 영성 / 김용태
04 특집1	장기기증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 구인회
10 특집2	한국의 장기기증 현황과 교회의 역할 / 윤경중
12 생명수호의 현장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 주정아
16 특집3	생명을 통한 부르심 / 이선애 수녀
20 특집4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하겠습니다 / 김영삼
24 교회의 가르침	인간 생명을 전달할 임무에 관한 교회 가르침 3: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인간생명〉 / 박정우 신부
30 생명사목	“생명수호주일”을 아십니까? / 이창하
34 체험수기	한마음군의 장기 기증 이야기
40 주요단체 연락처	
42 2011년 생명신비기금 후원자	
43 후원안내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발행일 2011년 11월 21일 / 통권 7호 발행인 염수정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310호 전화 02)727-2352 Fax 02)727-2355 편집디자인 재영아트 02)2276-0640



장기기증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구인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오늘날 장기 이식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사망해야만 했거나, 고통스럽게 시한부로 살 수밖에 없던 많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톨릭교회가 이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1956년 교황 비오 12세 때이다. 비오 12세는 이탈리아 각막 기증자 협회 대표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치료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체로부터 장기나 인체 조직을 떼어낼 수 있다는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나 조직 이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가톨릭교회는 윤리적·의학 적 차원에서 조직 및 장기이식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가 장기이식을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사랑의 삶은 때론 위험과 모험이 따르지만 그것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신앙관에 의한 것이다. 장기 기증과 이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봉사”는 그 도덕적 가치가 인정되며, 그러한 의료 관행을 정당화시켜준다. 모든 장기나 인간의 조직을 이식 할 때에는 기증자의 육체적 온전성에 어떤 식으로든지 손상을 가해야만 하는 장기 적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장기 제공자와 이식을 위해 제공된 장기들과 관련하여 특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장기이식 수술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였으며 매우 놀라운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인 생체이식은 기증자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외 장기 매매와 강요의 위험 등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회는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장기 및 조직 이식의 윤리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근본 기준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에 윤리 의식이 함께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때로는 장기이식 자체를 회의하고 경계하게끔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컨대, 장기이식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질적인 비난거리가 되는 것은 장기 매매 행위라든가 기증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 기증일 것이다. 인간의 장기는 상업적 행위의 대상이 아니며, 어떤 장기도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를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생명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 또는 가난 때문에 자신의 장기를 팔아 생계를 꾸려가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위의 보이지 않는 여러 형태의 압력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장기 기증을 위한 윤리적 기준은 생명 존중과 자유로운 동의이며, 관련된 당사자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장기기증 행위는 어떠한 의무나 의무적인 자선행위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성의 존중과 발전은 장기나 신체조직들을 단순히 고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자체의 육체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들을 참된 의미에서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격으로서의 고유함에 대한 강조이며, 인간이 항상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지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의학적 개입은 인간의 선(善)과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의학적 개입은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기술에 의한 인간의 도구화는 사실상 각각의 구체적 인간의 고유한 인격이 지니는 품위나 정체성이나 절대적 평등성까지도 근본적으로 전도시켜 버리고 만다.

만일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태아의 생명을 파괴해서 얻어지는 장기나 조직을 이식한다면 이는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 적출이나 이식을 통해 변형된 육체 혹은 전혀 새롭게 된 육체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증자이든지 수혜자이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심리

적인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심리적인 측면 역시 인간의 불가분성 및 통합성에 예측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적 가치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장기가 없어졌다거나 혹은 없었던 장기가 새롭게 이식됨으로써 놀랍게 변화된 삶의 형태에 대해 의식적이고도 자유로운, 그리고 책임감 있는 수용이라는 적절한 준비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면서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맞게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 외부 장기를 이식할 때에는 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체성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정도에 어떤 윤리적 한계를 두어야 한다.

장기이식은 수혜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며, 높은 위험을 가진 실험적 이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장기이식이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정체성의 본질적 요소인 ‘뇌’나 생식선 관련 ‘고환’이나 ‘난소’ 같은 것의 이식은 금지되어야 한다.

뇌 조직과 같이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조직 이식의 결과는 인격의 파괴 및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뇌세포의 수여와 뇌

이식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이식에서는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이식 전후의 정신적 일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이 생명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인간성의 존중과 발전이라는 차원과 같은 맥락에 있는 윤리적 기준이다. 곧 장기이식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에 유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의료진들로 하여금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한다. 장기이식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는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빈틈없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전제하고 요구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더 나은 다른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2) 장기이식 수술의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서 수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 3) 기증자와 수혜자의 동의,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곧 수술 후의 인간적 삶의 내용에 대한 인식, 4) 수술 비용과 수술 후의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그 조건들이다.

또한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동의라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장기이식에 관한 논의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이 성공적이려면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공여와 이식이 성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형제들 사이의 장기 공여와 이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장기 공여와 이식인 경우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가족의 압력, 주위의 눈초리 때문에 마지못해 장기를 기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유로운 동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증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증은 ‘자유로운 기증’이어야 한다.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증자의 자유가 요구된다. 기증자 자신이 이미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자유로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책임감을 요구하며, 구조적으로 인간적 가치를 고양시킨다.

이를 위해 수혜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 결과, 난점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기증 후 건강이나 일할 능력과 관련하여 이식 후에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망한 기증자의 경우 기증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식할 수 있다.

이렇듯이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는 결정을 통한 기증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 나아가서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삶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연대성의 인간적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교리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장기 이식은 장기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장기이식은 장기 제공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장기를 받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유익과 조화를 이룰 때에는 도덕률에 부합되며 또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어떤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지체 절단이나 그의 죽음을 직접 유발하는 장기 적출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교리서, 2296)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나 조직은 기증자의 생명이나 인격의 완전성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만을 기증할 수 있다. 또한 기증자의 생명과 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기증자가 감당할 신체적, 심리적 손상이나 위험이 수혜자가 받을 선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는 사후에만 기증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심장은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서만 합법적으로 적출해 낼 수 있다. 만일 기증자가 죽지 않았다면 심장의 적출은 그의 직접적인 죽음을 야기하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순을 범하는 것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사망은 인간이 신체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모든 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잃어버렸을 때를 말한다. 즉 심장과 호흡 기능이 확실히 멈추었고,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후기증은 뇌사자 기증을 의미한다. 사후 기증의 경우는 사망했음이 확실하게 판정되어야 가능하다.

사후 장기 적출은 살아있을 때 기증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 해 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장기 적출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죽은 뇌사자에서 추정 동의를 통해 장기 적출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뇌사 후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뇌사자가 장기 적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허용할 수 있으리라는 추정 판단을 내리는 데

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윤리적 상위 가치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추정 동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기이식의 윤리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발전이라면 이는 당연히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장기이식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볼 때 장기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점도 이제는 극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의료 기술의 실천과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에 따른 불균형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간 장기와 조직의 부족을 이종이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부 반응이나 이종으로부터 감염원이 인간에게 유입될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이종이식은 이식되는 장기가 이식받는 사람의 정서적 유전적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환자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국의 장기기증 현황과 교회의 역할



윤경중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
사업팀장

몇 시간씩의 신장투석으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가지만 그 와중에도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고 갈지도 모를 어린자녀들 생각에 애타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사연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고통 속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2011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각막과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를 포함하여 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 해에 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500회를 웃도는 정도라서 이 분들이 모두 이식을 받아 건

강해 지려면 산술적으로 13년 정도 걸린다. 13년이라는 세월은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고, 이식을 기다리던 중에 많은 분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긴 시간이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노모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아들, 아무것도 모른채 보채는 어린자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 아직도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젊은 청년, 한치 앞도 볼 수 없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젊은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아픈 이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보시고 낮게 해주던 그 젊은이. 우리는 그러한 그분에게서 ‘희망’을 보았기에 그분을 ‘메시아’라 부른다.

그분은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2-13)”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자 지상명령이다. 즉,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요, 길이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였기에 사랑으로 창조된 그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행위 중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는 사랑이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가 믿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이 앞서 언급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일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당신의 두 눈을 앞 못보는 이들을 위해 내어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은 엄청난 추모행렬과 수십 만 명의 장기기증 희망자들 참여를 이끌어 내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주는 희망이다. 또 사랑의 열병이고, 참으로 자연스러운 사랑에너지의 흐름이다. 큰 사랑에서 우리들의 작은 사랑으로 사랑은 흘러 넘쳤고, 그 넘친 사랑은 보다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로 다시 흘러가고 있다. 세상은 이로 인하여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졌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

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넘쳐 큰 바다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었다.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생명의 복음’ 회칙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웅적인 행위들 중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장기기증이라고 말씀하셨다.¹⁾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교회는 윤리적, 의학적 차원에서 장기이식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며, 타인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이자 숭고한 행위 중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사후에 이루어지는 장기기증 희망에 참여하시기를 요청한다. 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교회는 비로소 우리의 메시아처럼,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세상에 ‘희망’이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

1)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1995. 3. 25., 86항 / 요한바오로 2세 “혈액과 장기 기증자들”, 1984. 8. 2., The Pope Speaks 30 : 1gh, 1985, 1-2면

생명을 위하여-

서울 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를 찾아서



장면 1

국내 장기이식의 출발

1969년 3월 25일 오후,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동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다. 환자 가족들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이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3시간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기이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미국에서 살았던 환자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 어머니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그의 형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찾아 헤맸다. 가톨릭대 성모병원(현 가톨릭대 중앙의료원)이 큰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는 기증자로 나선 큰 아들을 밀어내고 자신이 신장을 기증했다. 당시로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수술에 건강한 큰 아들이 나서게 할 수 없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이 이식 수술로 건강을 되찾은 아들은 이후 불우한 이웃을 돕는 한·미 신장이식재단도 창립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양철우 교수)는 지난 40여 년간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한국 이식 의학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센터는 우리 사회의 장기 기증 및 이식을 통한 생명 살리기와 사랑 나눔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장기이식센터의 의료 역량과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다. 지난 40여 년은 수없이 많은 장기이식 관련 기록을 세우고, 국내 최고의 장기이식 인프라를 구축해온 시간이었다.

장기이식센터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식환자만을 위한 중환자실과 수술실, 병동, 외래 공간 등을 분리·운영 중이다. 장기이식 전담 간호사도 배치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각 장기별로 특화된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들이 이식과 기증 상담에서부터 수술 후까지 동행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밀착 시스템을 운영해 관심을 모은다. 생명력을 나누고자 하는 기증자와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혜자 사이에서 성공적인 장기이식이 이뤄지고 이후 건강까지 관리해주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들이 바로 코디네이터다. 전국 8개 부속병원과 29개 협회병원을 비롯해 가톨릭대 의대 동문병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도 가톨릭 의료의 저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차별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장기이식센터는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재이식하거나, 다른 질병을 치료한 후 이식수술을 하는 등 다양한 첨단이식기법을 속속 선보여 왔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장기이식 수술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연구업적 면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뇌사자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와 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국립장기이식센터로부터 우수 뇌사자 관리 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면 2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

어머니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 자녀 셋 중 한 명이 자신의 간을 기증겠다고 당장 나섰다. 하지만 의학적인 이식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았다.

또 다른 자녀는 수차례 망설이다 검사를 받았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그 자녀는 의료진들에게 “자신은 어머니와 조직이 맞지 않아 이식할 수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남은 한 자녀는 검사조차 극구 거절했다. 자신은 어린아이도 키워야하며,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그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반대도 만만찮았다.

그 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가족들과 화해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물론 기증자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돼야 하

기에 타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하긴 어렵다. 이식 관련 의료기술 등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편견에 휩싸여있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뇌사에 대한 인식 개선은 시급한 변화가 요청된다.

장기이식센터 김해정 팀장은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가톨릭교회는 장기이식이 생명을 살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장기 공여자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생체기증이나, 이식받는 환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장기이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뇌사자들의 장기 기증이다. 뇌사자 1명의 기증으로 보통 9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생전에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이들은 여전히 적고, 사후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는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면 3

알아야 생명도 살린다

만성질환을 앓다 어렵사리 이식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한 환자의 가족들이 장기이식센터를 다시 찾았다. 애가 타는 가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다른 대



처방안을 함께 나누다 보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어서도 내담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장기이식센터에서 활동 중인 5명의 코디네이터들이 온종일 내담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간이식을 받으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이식할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면 치료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요?” “불법으로 장기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등등.

수혜자 및 기증자들의 신체 상태는 물론 사회·문화적 배경 등도 고려해 상담을 이어가고, 이식수술까지 진행하도록 돕는 과정은 녹록치 않다. 게다가 이식수술은 매우 복잡해서 관계되는 모든 이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각막기증 소식은 일부러 낸 광고는 아니었지만, 신자는 물론 일반대중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돕는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내에서조차 장기기증 희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평균 1만3000여 명 이상의 장기이식 대기자가 발생하며, 그중 800여 명 이상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 시 기증과 사망 후 기증, 생체기증 등으로 나뉜다. 건강한 상태에서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은 신장 2

개중 1개, 간의 일부, 골수와 양막, 제대혈 등이다. 뇌사 상태에서는 심장과 폐, 췌장, 근골, 혈관 등도 기증할 수 있다. 사망한 상태에서 기증 가능한 장기나 조직은 각막과 근골, 혈관, 피부 정도만 기증할 수 있다.

순수장기기증을 비롯해 뇌사자 장기기증, 사후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 등은 전화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상에서도 기증 희망을 등록할 수 있다.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실천은 무엇일까.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는 것만큼 큰 기쁨은 찾아보기 힘들 듯하다. ♥

※전화상담 및 접수 : 02-2258-1167

서울 성모병원 장기기증 상담센터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 www.obos.or.kr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시신기증 : 02-2258-7135 가톨릭대 성의교정 총무팀



주정아
가톨릭신문사 기자



생명을 통한 부르심

우리가 받은 성소
생명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이선애 수녀
(제)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았고 산사태와 물난리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몸서리치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세상에 파견되었으며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손상 환자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저변의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에 큰 몫을 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의 역사적인 일화를 떠올리게 되는 계절입니다. 2009년 추기경 선종 당시와는 달리 국내 장기기증에 대한 현실참여는 그리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부로 한 부부가 찾아 오셨습니다. 결혼 35주년을 맞아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장기기증을 결심하여 부부가 함께 본부를 찾은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삶의 중심에서 그분들이 진정 찾은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문의를 통해 본인도 신청을 하였지만

뜻깊은 일이라 이웃에게도 권했더니 기꺼이 동참하고자 해서 신청서를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부를 찾아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이들 중에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모릅니다. 생애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사후 장기기증을 위해 장기기증 신청 서약을 한 날부터 몸을 잘 돌보아야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까지 생명을 나누는 첫 걸음이 오히려 기증 신청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의 현존과 그것을 통한 자신들의 존엄한 생명을 찾고자 하는 내면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정한 생명이며 나눔으로 얻어지는 소중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증 뒤에 장기기증란이 마련되어 본인이 직접 기증을 원하는 장기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족의 동의 없이 곧 바로 장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를 하고 있지만, 뇌사 시 가족동의 등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직 우리 문화 안에서는 뇌사 시 가족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애타는 일입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뇌사자 가족들의 반대로 기증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증자는 줄고 수혜자들의 대기기간이 평균 3년 이상으로, 그마저도 병세가 악화되면 가혹한 기다림 끝에 사망에 이르고, 장기이식의 기회가 와도 이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하는 빈곤한 생명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2006년부터 이식비용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무너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이식 대기자 및 무료개안 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에서는 열일곱 분의 소중한 생명을 통해 소외된 곳에서 생명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참 생명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이론(Butterfly effect)은 우리 삶 안에서도 종종 체험되어지곤 하는데,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

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갯짓이 모이고 모여서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동참이 큰 의미가 되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위해 우리 각자가 받은 소명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이고 주님께 대한 응답인지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생명을 지녔으며 이웃의 생명안에 현존하시며 부활의 신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10여 년의 장기간
투병생활 중 본부를
통해 장기이식대기자
이식비용을 지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김00씨가 있습니다.
연고자의 경제적
지원이 없고 가족
중에서도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이도 있어 치료비 마련이 매우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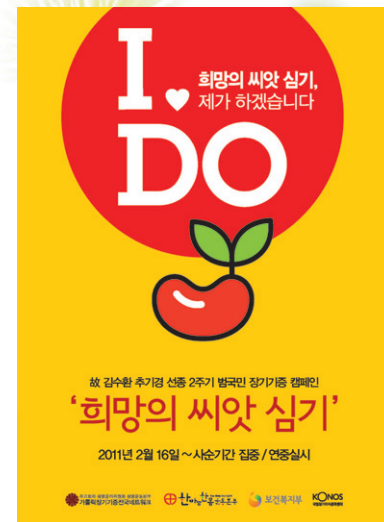
경우였습니다.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심장과 신장 모두를 상실해 동시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받기 8년 이상,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병마로 직장도 잃고 빚도 많아져 가정은 파탄이 나고 혼자서 병마와 싸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사자의 장기기증으로 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우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은 남이 아닌 하느님 가정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이며 나눔에 있어 아픔은 여러 형태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하듯 우리의 나눔은 누군가의 비움과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어 새 생명을 주고 삶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에서 나누고 없는 가운데 풍부한 생명이 짝트게 되는 진리를 우리는 삶 안에서 때때로 체험하게 되니 말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사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무료개안 및 장기이식 진료비 지원사업 ☎02)727-2293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하겠습니다





김영삼

(제)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부

우리 몸에는 생명과 직결된 여러 가지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장이 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병이 심각해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고장난 장기를 건강한 장기로 바꾸어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장기로 바꾸어 주는 것을 장기이식이라고 하고,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을 장기이식 대기자라고 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뇌를 다치거나 병이 생겨 뇌의 모든 기능이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를 뇌의 사망, 즉 뇌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만간 심장이 멎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허락하면 그 분은 장기기증자가 되어 자신의 장기를 병이 들어 있는 환자에게 주어서 이식수술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사라는 죽음의 상태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뇌사' 상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기증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나눔이자, 가장 소중한 나눔입니다. 이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고통 중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현재 지금
이순간에도
14,000여명의
환우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

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의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추기경님 말씀처럼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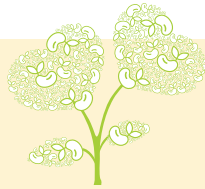
현재 지금 이순간에도 약 14,000여명의 환우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미쳐 기증자를 찾지못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1년에 800명이 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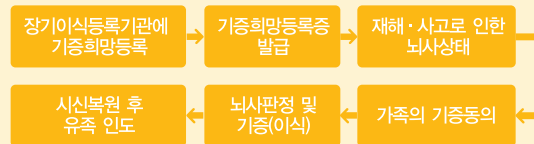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희망의 씨앗'은 우리의 이웃들과 내 마음 속에서 큰 희망의 나무로 자라나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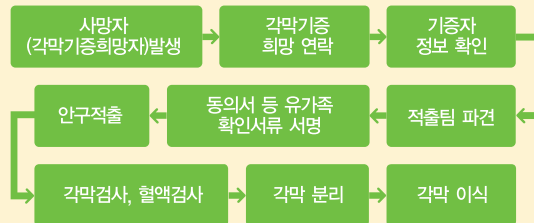
장기기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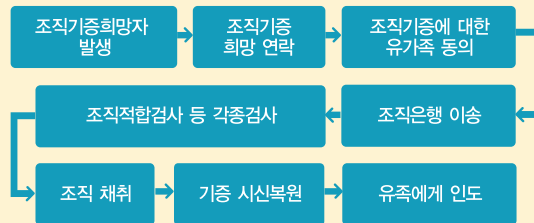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안구(각막)기증



사후 인체조직기증



이렇게 동참하시면 됩니다

1. 장기기증희망자는 가족과 상의 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상담하시고 장기기증희망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 전 화 : 1599-3042
- 홈페이지 : www.obos.or.kr
-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 2가1 가톨릭회관 413호

2. 기증희망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 과 신분증 부착용 스티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희망신청 접수 후 약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간 생명을 전달할 임무에 관한 교회 가르침 3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인간 생명> 해설



박정우 신부
가톨릭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2.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

〈인간 생명〉은 2항에서 6항까지 제1부 ‘문제의 신국면과 교회의 교도권’이라는 소제목으로 본론을 시작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2항에서 인구 조절을 요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들을 일부 소개한다.

첫째, 재화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자녀가 많은 가정과 개발도상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1960년대에 세계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신봉하는 단체들의 영향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미 산아제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우려

하여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조건으로 산아제한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올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는 불의한 구조로 말미암은 재화의 공정한 분배의 실패라는 것이 드러났다.

둘째로, 교황은 “인간사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 혼인에서 부부 사랑의 가치, 이 부부 사랑에 관련된 부부 행위(sexual intercourse) 등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었음을 지적한다. 1960년대는 페미니즘 또는 여성주의 운동이 확대되는 시기였고, 여성이 가정을 떠나 임금 노동 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출산을 통제하고픈 욕구가 상충하던 시기였다. 더구나 경

구피임약 등 피임법 사용이 확산되면서 부부 행위는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셋째로 교황은 “사람이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생명 전달을 규제하는 법칙”에 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인간이 하느님이 주신 지성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면 약과 기구를 통해 자신의 출산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항변이 있다는 것이다.

3항에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임을 금지해 온 교회의 가르침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언급된다.

첫째, “현재의 생활 조건으로 보거나 부부의 화목과 신의를 보전하기 위한 부부 관계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부부에게 절제라는 큰 희생을 요구하는 “현재의 도덕률을 재검토해야하지 않겠는가?”

둘째로, 피임 찬성론자들은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전체의 부분적인 선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위 “전체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Totality)”를 내세워 피임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전체성의 원리는 의학윤리에서 환자의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희생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이론이다. 마찬가지로 피임 찬성론자들은 “부부 생활의 전체에 걸쳐서” “자녀 출산의 목적성”이 지켜질 수 있다면,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인 부부행위에서” 자녀 출산의 목적성을 희생시키는 피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미스 교수는 전체성의 원리를 부부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부 행위가 부부 생활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논리일 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혼인은 단순히 부부행위나 다른 요소들의 종합이 아닌 전혀 다른 본성의 실재라는 것이다. 비오 12세도 ‘물리적 기관(physical organisms)’과 ‘도덕적 기관(moral organisms)’을 구별하면서, 물리적 기관은 분명히 전체에 대해 부분이 종속될 수 있지만, 도덕적 기관에서는 각각의 부분이 전체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도덕적 기관에서는 전체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를테면 국가 혹은 공동선이라는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제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억울하게 제거된다면 전체 사회는 유지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의

정의와 공동선은 훼손된다. 부부 사이의 개별적인 성관계도 각각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전체의 일부가 아니다. 마치 부부 생활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면, 가끔씩 외도를 해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황은 이 ‘전체성의 원리’에 따른 피임 허용 주장에 대한 세밀한 논증은 하지 않지만, 14항에서 이 주장에 대해 단죄하며, “본질적으로 윤리질서를 파괴하는 인간답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 사회의 선을 옹호하고 촉진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지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4항에서 교황은 교회의 교도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혼인에 대한 윤리 원칙을 새롭게 더욱 깊이 연구”하였고, 그 바탕은 하느님의 뜻을 밝혀주는 자연법이며, 사람들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5항과 6항에서 바오로 6세 교황은 선임교황인 요한 23세가 1963년 설립하신 피임에 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보고서의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았고 혼인에 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것이어서 “오랫동안 하느님께 기도한 뒤에,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따라 이제 이 어려운 문제에 대답”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교리상의 원칙

7항부터 18항까지는 2부 ‘교리상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부부 사랑과 부모의 책임, 부부 행위의 본질과 목적 등을 다루고 있다. 7항에서 교황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 피임에 대해 “부부 사랑”과 “책임감 있는 부모됨의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두 가지 요소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 부부 사랑(Conjugal Love)의 정의와 특성

8항은 우선 부부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참 본질과 참 품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부부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즉시 ‘부모됨’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에페소 3,15)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부 사랑의 두 요소인 일치와 생명 출산이 불가분의 요소로서 들어있음을 암시되어 있다.

이어서 회칙은 “혼인은 우연이나 자연력의 맹목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계획을 인간들 사이에서 실현시키고자” 제정하신 것이며, 부부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완성시키는 인격적 교류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위하여 하느님과 협조하는 것,” 즉 사랑의 일치와 출산이 혼인의 본질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세례 받은 자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표시하는 성사임을 지적한다.

부부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부부가 이런 “인격의 교류”인 사랑을 통해 사랑의 능력을 키우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숙함을 의미한다.

9항은 8항에 비추어 부부 사랑의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부부 사랑은 완전히 인간적(human) 사랑이다.” 그것은 동물처럼 본능이나 충동이 아니라 “자유의지(free will)의 행위”이며 부부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같이 되어 인간적 완성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total) 사랑”이다. 부부는 어떤 부당한 제한 없이 또 “자기만의 편리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는 특별한 형태의 인격적인 우정이다. 부부는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자신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

셋째, “죽기까지 충실하고(faithful) 독점적(exclusive)”인 사랑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혼인의 유대를 맺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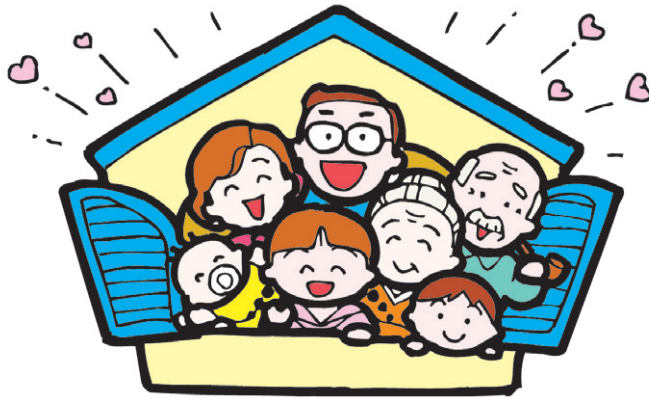
며 이 유대는 평생 동안 좋을 때든 나쁜 때든 풀릴 수 없다. 비록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세기를 통해 많은 부부가 보여준 모범은 이런 신의는 혼인의 본질에 따르는 것이며 거기서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넷째, “이 사랑은 결실 풍성한 것(fruitful)이다.” 부부의 사랑은 흘러 넘쳐 “새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창조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사목헌장> 50항이 지적한대로 “혼인과 부부 사랑은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자녀들은 참으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은 부모들을 신적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는 선물이다.

2) 책임감 있는 부모됨 (Responsible Parenthood)

많은 이들이 피임을 정당화하는데 “책임감 있는 부모됨”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10항에서 교황은 이 용어의 참된 의미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생물학적으로 생식력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은 부부 행위가 자녀 출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성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존중이 없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 책임있는 부모됨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로 “본능과 감정의 충동”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인격체로서 영혼의 능력인 지성과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감정과 충동을 절제함으로써 인내하고 사랑 가득한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부모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요소

가 바로 자녀의 수를 결정할 책임이다. 책임감 있는 부모됨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한 뒤에 “더 많은 자녀를 두기로 결정하든지, 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윤리 원칙을 지키면서 일정한 기간이나 불확정 기간 동안 다른 자녀들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무조건 생기는 대로 자녀를 낳도록 가르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이다.

교황은 그러나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 창조 계획에 순응”하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객관적 윤리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질서의 믿을 만한 해석자는 각자의 올바른 양심”이며 “부모의 책임 수행은 올바른 가치 질서 안에서 하느님과 자신들과 가족들과 인간 사회에 대한 부부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단지 자신이 좀 더 편하기 위해, 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인들은 부부행위와 가족계획에 있어서 “현실적” 이유보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순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질서가 아닐까? ♥

다음호에 계속



지난 제3회 생명수호주일(2010. 12. 5)기념 '생명미사'를 염수정 주교와 사제단이 명동대성당에서 집전하고 있다

- 제4회 생명수호주일(2011. 12. 4) -

생명수호주일이란?

서울대교구에서는 생명경시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가톨릭교회의 생명수호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며,
다함께 생명을 경축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12월 첫째 주일을
‘생명수호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시며, 당신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현세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느님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함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약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죽음의 문화’ 현상은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의 복음』(1995)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주체성, 자유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 말미암아 배아, 태아, 장애인, 노인과 같이 더 큰 수용과 사랑과 보살핌이 요구되는 생명을 쓸모없는 생명, 또는 짐으로 여기며 거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또한 낙태, 안락사, 배아 조작, 인공 생식, 태아 진단 등

생명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또 이를 법적으로도 합리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격하는 것”(『생명의 복음』 9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도 역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저출산과 자살의 만연 역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인간 생명은 조작, 훼손되거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

해 도구화될 수 없는 신성한 실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 나서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이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기도와 함께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묵상하며 이기심이나 소유욕

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경축하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 주일을 '생명수호주일'로 정하였으며, 2008년 12월 7일 제1회 생명수호주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구의 모든 미사를 생명수호를 위해 기도하는 '생명미사'로 봉헌되며, 본당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명수호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올해 제4회 생명수호주일(2011. 12. 4)을 더욱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변에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해주며, 매일 생명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고 그 기쁨이 우리 주위에서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수호주일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더욱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생명을 위한 기도(공식기도문)



-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복돋아 주시고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례로 보는 장기기증

한마음군의 장기 기증 이야기



“따르르~릉~”

평온한 토요일 오후, 점심을 먹고 나 조용했던 집안에 전화벨이 울렸다.

식곤증이 몰려오는 나른함 속에 신문을 뒤적이던 마음이 아빠 대신 마음이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네? 뭐, 뭐라고요? 그럴리가...우리 마음이가 확실한가요?”

심하게 떨리는 마음이 엄마의 목소리가 뭔가 심각한 일이 터졌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오늘 아침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밖에 나갔던 마음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정신이 혼미해져 어떻게 옷을 입고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해보니 마음이와 같은 반 친구였던 병태의 부모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전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나란히 합격한 두사람이 대학입학 선물로 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든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이미 마음이는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워 인공 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마음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뇌를 다쳤다며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있다고 했다. 마음이 부모는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밤을 뜯 눈으로 보냈다.

하루가 지나 담당 의사가 부모를 다시 찾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혹시나 하는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담당 의사는 더욱 악

화된 아들의 상태만을 이야기해줬다. 뇌 촬영 검사 결과 ‘뇌사’로 추정된다며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어제 아침까지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던 아들이 뇌사라니 믿기지 않았다. 그냥 인공호흡기를 달고 잠든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의 준비라니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음이 부모는 담당 의사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다시 중환자실의 간호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아이 손이 이렇게 따뜻한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것 같은데, 뇌사라니요?” 바쁜 손을 잠시 멈춘 중환자실 간호사는 ‘뇌사라는 상태는 뇌는 죽고 심장은 뛰고 있어 아직 손은 따뜻한 것이라며 숨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쉬고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이 부모는 다시 긴 하루를 보냈다. 면회 시간이 되어 들여다본 마음이는 여전히 잠든 듯한 모습이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아 보이는 마음이 얼굴을 쓸어내리며, 손에서 전해 오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부모는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마음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번에 ‘뇌사’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던 상태가 맞습니

다. 점차 뇌간의 신경반사가 소실되고 있고 약물로 혈압은 조절되고 있지만 며칠 안에 그것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막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담당의사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의 죽음도 인정하기 힘든 그들은 장기 기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심장이 이렇게 광광 뛰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살리지는 못하고 장기 기증이라니...” 담당 의사가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에 화를 내고 말았다. 몇 년씩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던데 담당 의사는 좀 더 생각해 보시라며 장기기증 관련 안내 책자를 건네주고 나갔다.

마음이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생각도 나지 않아 그들은 하염없이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울며 앉아 있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심정이었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마음이의 동생이 병원에 도착했다. 형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동생도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다. 면회시간 전 세 가족은 그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음이의 마지막 시간을 두렵게 맞이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마음이를 면회를 하면서 가족들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날 수밖에 없는 마음이의 삶이 애처롭고 억울하게 느껴졌다. 대학에 가 보람있는 길을 찾아 남을 돕고 살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들이 그 꿈도 꾀 보지 못한 채 떠날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가족들은 마음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암담하기만 했다.

그때 문득 담당 의사가 주고 간 장기 기증 안내 책자에 쓰인 ‘희망의 씨앗, 1명의 장기 기증이 9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문구가 마음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다. 아까는 담당의사의 말이 너무 야속해 화를 냈지만 책자를 들여다보니 장기기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천천히 눈에 들어왔다.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불현듯 마음이의 아버지는 이것이 아들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에게 마음이가 장기 기증을 하고 가면 마음이의 죽음이 조금이나마 덜 헛될 것 같다고 넌지시 의견을 물었다. 마음이 어머니는 울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다.

한참 후 마음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오래전에 마음이가 백혈병 걸린 학교 친구를 돕고 싶다며 골수 기증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었다고.... 그때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 허락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들과 언쟁을 벌였었다는 이야기였다. 마음이도 자신의 장기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뻐하리라는 확신이 들면서 아들의 마지막을 뜻깊게 마무리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당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고 담당 의사는 마음이의 상태가 현재 뇌사 추정 상태로 장기기증

에 대해서 동의하면 뇌사 여부에 대한 검사 및 장기기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를 소개시켜 주었다.

“어려운 일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귀한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는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글쎄…저희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장기 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담당 의사로부터 한가음 군이 뇌사 상태라는 말은 들으셨지요? 힘드시겠지만 뇌사 상태에서는 다시 뇌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조만간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장 정지가 올 때까지 짧은 기간 내에 보호자분들이 승낙하시면 뇌사 환자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한 분의 장기 기증으로 여러 명의 말기 장기 부전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가족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시면 뇌사 판정을 시작합니다. 뇌사 판정은 뇌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6시간 간격으로 뇌사 조사를 두차례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뇌파검사를 바탕으로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마음이는 사고로 인한 뇌사니까 검찰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뇌사를 판정하는 동안 기증 가능한 장기를 알아보는 여러 검사가 진행됩니다. 뇌사가 판정되고 기증받을 환자가 정해지면 수술실로 옮겨지고 수

술이 끝나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냥 보내기도 아까운 우리 애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술을 받으면 고통스러울 텐데 죽고 난 다음에도 기증할 수 있나요?” “장기 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뇌사를 판정하는데 고통스러운 절차는 없습니다. 뇌사자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서는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지만, 사망 이후에는 각막과 조직의 기증 외에는 병원의 준비정도에 따라 콩팥 정도의 기증이 가능할 뿐입니다. 일단 기증에 동의해 주시면 뇌사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보고, 확인이 된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의 부모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기기증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검사를 해 봐야 확실하게 결정되기는 합니다만 기증하실 수 있는 장기는 양쪽 신장, 심장, 간, 췌장, 양쪽 폐, 각막 등 모두 9개입니다. 이 중에서 부모께서 기증을 원하지 않는 장기가 있으신지요?” “어차피 기증하기로 맘먹은 건데… 할 수 있는 장기는 모두 기증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친구 중에 신장 투석중인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 아들의 신장을 기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규정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게 장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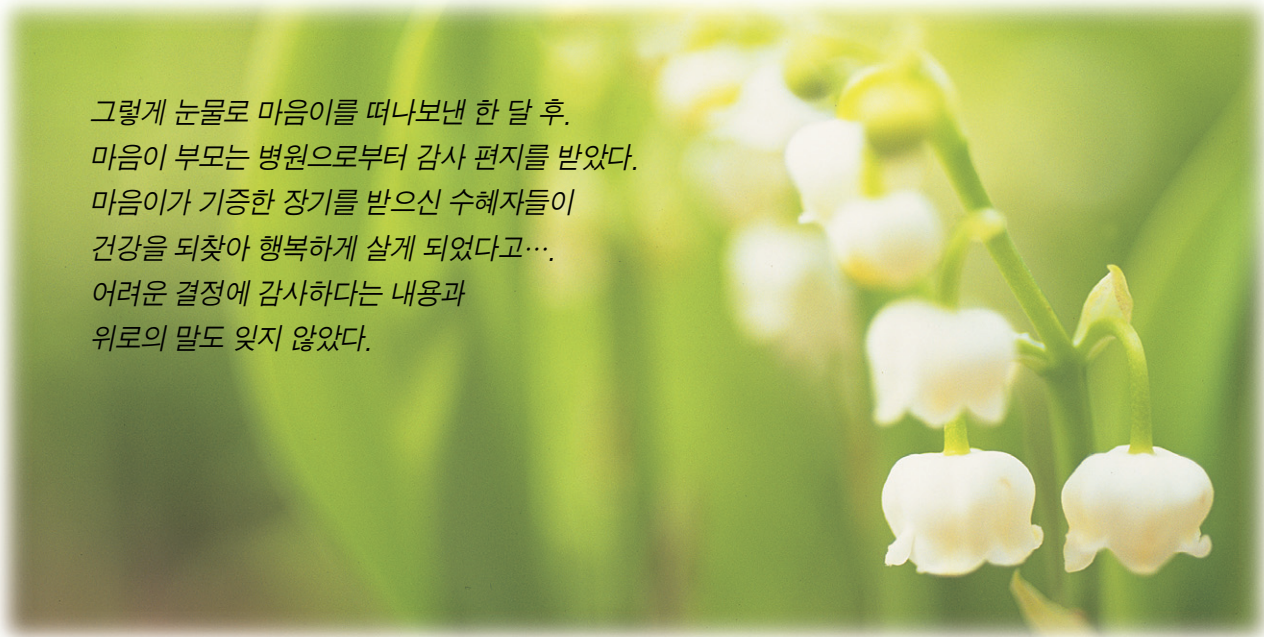
식을 받을 환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족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친구를 지정해 기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후 2차례의 뇌사 조사와 뇌파 검사가 진행되었고 마음이가 뇌사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뇌사 판정 위원회가 마음이의 뇌사조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는 중환자실 면회실에 있는 부모를 다시 찾아왔다.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 한마음군의 뇌사가 판정되었습니다. 마음이가 오토바이 사고였기 때문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과 협조해 검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장기 적출 시간이 결정되는데, 수술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부모는 중환자실에 가서 마음이를 마지막으로 면회했다. 마음이 부모의 부탁으로 신부님이 마음이가 있는 중환자실로 와 마지막 기도를 해 주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는 검찰 승인이 났고, 수술 시간이 결정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뭘

그렇게 눈물로 마음이를 떠나보낸 한 달 후,
마음이 부모는 병원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마음이가 기증한 장기를 받으신 수혜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을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옮길 때 저희와 같이 계시면 됩니다. 장기적출 수술을 하는 동안 가족분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저희병원 장례식장을 예약해놨습니다. 혹시 댁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사용을 원하시면 그 곳을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을 결정하시기 전까지의 치료비중 일부와 장제비와 위로금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마음을 떠나보낸 한 달 후, 마음이 부모는 병원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마음이가 기증한 장기를 받은 수혜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아직 부모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지만 마음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 왔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 어려운 걸음을 떼어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마음이가 여러 명을 살리고, 몸에 수술 자국은 남았지만 마음은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또 마음이 부모도 기회가 된다면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바쁘게 통화를 하며 상담 중이던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는 마음이 부모를 따뜻하게 맞았다. 마음이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새 삶을 찾았는지 궁금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는 마음이가 모두 6명에게 새 삶을 주었고, 모두 수술이 잘 되어 경과가 좋다고 말하면서 장기를 기증 받은 수혜자들의 개인적인 정보는 알려 드릴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 하였다.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결정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 결정이 많은 장기 이식 대기자에게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두 분이 장기기증 희망 서약까지 하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는 마음이 부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비록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이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성공적인 장기 이식 수술덕분에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니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마음에도 부모의 이런 뜻을 알고 하늘에서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마음을 통해 세상에 하루하루 애타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마친 마음이 부모는 여전히 아들을 떠나보내 아픈 마음이지만 전과는 다른 따뜻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

❖ 생명수호기관 : 모자보호

	단체	전화	E-mail, 홈페이지
미혼모 시설	마음자리	02) 2691-4365	momjari@naver.com
	새싹들의 집	031) 457-4383	saessach@hanmail.net
	생명의 집	031) 334-7168	smyh119@hanmail.net
	인천 자모원	032) 772-0071	http://injamoo.or.kr injamoo2000@hanmail.net
	마리아의 집	033) 262-4617	www.maryhome.or.kr
	대전 자모원	042) 934-6934	jamowwon-tj@hanmail.net
	자모원	043) 212-0437	www.jamowon.or.kr jamowon0@kornet.net
	마리아 모성원	051) 253-7543	www.marymosungwon.or.kr mosungwon@hanmail.net
미혼모자 공동 생활시설	성모의 집	061) 279-8004	sm2010@hanmail.net
	함께 크는 집	02) 855-0370	dearjungjin@hanmail.net
	스텔라의 집	032) 864-0055	srvalentina@hanmail.net
	모니카의 집	032) 832-8075	susanna2006@hanmail.net
	요셉의 집	033) 242-4617	mather-baby@daum.net
	마리아 모성의 집	051) 255-7543	mosungeuijip@naver.com
입양원	성가정 입양원	055) 244-1784	ngo0720@hanmail.net
	꽃동네 천사의 집		

입양원	성가정 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9-15 www.holyfcac.or.kr, http://hfc@holyfcac.or.kr TEL.02) 764-4741~3 FAX.02) 764-4746
	꽃동네 천사의 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TEL.043) 879-0285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상담의 대상

1. 임신부 : 기혼자, 미혼자, 청소년 등
2. 임신부의 배우자 / 태아의 부친
3. 낙태경험자
4. 낙태경험자의 가족
5. 낙태관련 종사자

1) 영성생활상담소

1) 문의가능시간 및 연락처 :

월~금 9:30~17:30 ☎ 02) 776-8405, 02) 776-2516

토/일 10:00~17:00 ☎ 010-9770-7461

2) 상담장소 : 영성생활상담소 상담실(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24호)

3) 홈페이지 : <http://www.rcckorea.or.kr>

2) 나우리심리상담센터

1) 상담운영시간 : 월~금 10:00~18:00 (사전예약시 21:00까지 가능)

2) 문의 및 연락처 : ☎ 02) 986-4447 / 011-9733-4466

3) 상담장소 : 나우리심리상담센터 상담실(성북구 동선동3가 163번지 3층)

4) E-mail : ks1467@hanmail.net

❖ 장기기증 · 시신기증 ·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1)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모든 상담 및 신청가능)

☎ 02) 3789-3488 www.obos.or.kr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시신기증)

☎ 02) 2258-7135

3)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www.chscb.com

- 제대혈기증 ☎ 02) 2258-7458

- 조혈모세포기증 ☎ 02) 532-6517

❖ 청소년 상담(자살예방, 위기 청소년)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02)834-7231~4

www.boramyc.or.kr

❖ 자살예방 상담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 1599-3079(생명친구)

www.3079.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 727-2350

www.forlife.or.kr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 02) 460-7623

<http://bioethics.cbck.or.kr>

<http://prolife.cbck.or.kr>(생명운동본부)

2011년 생명신비기금 후원자(1월-10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염수정 · 유원경 · 이보혜 · 이홍주 · 임희선 · 정수선 · 정혜련
2월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백승세 · 염수정 · 유원경 · 이보혜 · 이홍주 · 임희선 · 정수선 · 정혜련
3월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염수정 · 유원경 · 이보혜 · 이홍주 · 임희선 · 정수선 · 정연수 · 정혜련
4월	맹성신 · 박정우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이홍주 · 임희선 · 정수선 · 정혜련
5월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서성희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이홍주 · 임희선 · 정수선 · 정연수 · 정혜련
6월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서성희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이홍주 · 임희선 · 정수선 · 정연수 · 정혜련 · 황은진
7월	감사헌금(무기명) · 맹성신 · 박정우 · 서성희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임희선 · 정수선 · 정혜련 · 조병식 조인기
8월	감사합니다(무기명) ·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서성희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임희선 · 정수선 · 정연수 정혜련 · 조병식
9월	감사합니다(무기명) · 김진숙 ·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서성희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임희선 · 정수선 정연수 · 정혜련
10월	감사합니다(무기명) · 김학모 · 맹성신 · 박정우 · 서성희 · 염수정 · 유원경 · 이상욱 · 임희선 · 정수선 · 정연수 정혜련